

경기도 광주 '우리절' 주지였던 동봉 스님이 10년간 혼신을 다해 일군 '우리절'을 이루려 대가없이 다른 스님에게 넘기고,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다. 최근 일시 귀국한 동봉 스님은 아프리카에서 겪은 포교 체험담을 본지에 보냈다. 스님은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산자락 마랑구에서 현지인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

동봉스님의 아프리카 포교기

지난 4월 중순경, 킬리만자로 산자락, 한국불교인으로서 최초로 구입한 마랑구의 법당부지 풀밭에서 20대 중반의 몇몇 젊은이들이 내게 물었다.

"들은 바에 따르면 불교는 무신론이런데요? 다시 말해서 신을 부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젊은이들의 낯카로운 질문을 받으며 '아프리카에도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구나' 하면서 매우 대견스럽게 생각했다.

"불교는 무신론도 아니요 신을 부정하지도 않네. 다만 신을 말하지 않을 뿐이네. 그 대신 오직 인간(중생=부처)의 소중함을 얘기하지."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종교가 신을 말하지 않고 오직 인간을 얘기하는냐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선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몇이나 두었는지를 되물었다. 그들은 모두 일찍이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비유를 들어가며 물었다.

"가령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큰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위치한 마랑구 법당 부지의 한 나무 아래에서 동봉 스님과 아프리카인들이 좌선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민아

한국불교, 아프리카엔 없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봉 스님(맨 오른쪽). 사진제공=김민아

“굶주리고 핍박받는 땅이기에 부처님 가르침 더욱 필요”

물이 범람한다고 치세. 그리하여 자네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하나님과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큰물에 떠내려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자네들은 누구를 먼저 건지겠는가?”

그들은 한참을 생각더니 “참된 신앙인으로서 본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겠지 만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친다면, 글썽요... 아무래도 제 아들딸들을 먼저 건질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솔직한 대답이라 여겼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을 말하지 않고, 다만 사람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이라네. 왜냐하면 사람이 곧 부처이고 하나님이라 보기 때문이지.”

그들은 내 얘기를 듣고 나서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아직까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와 같이 말한 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전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교를 갖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리둥절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나 다 기독교든 무슬림이든 아니면 무속이든 반드시 그 어딘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보다 정확한 물음이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는 아무리 많아 하더라도 신을 믿고 신에 속한 종교로서 자기 내면에서 부처를 구하고 마음을 닦으며 사람을 으뜸으로 가르치는 불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다. 아니, 어쩌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즉 불교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모든 종교로 얘기할 수 있다.

만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보다 우선하는 자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참으로 거대한 대륙이다. 이 지구상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다. 53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인구가 9억2400만 명이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10억 이상의 인구가 늘어 19억 9400만 명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는 3초마다 한 사람씩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많이 배워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의 교화도 포함하기는 하겠지만, 보다 큰 뜻은 험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아주 미약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학이요 생명학이며 자연에 관한 학문이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생명은 왜 소중한 것이며 자연환경은 왜 잘 보존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넉넉하고 부유한 나라에도 보급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아프리카처럼 한없이 순수 하면서 또한 한없이 가난한 나라에 더욱 필요한 종교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프리카에 불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스리랑카불교사원을 비롯하여 미얀마, 태국, 중국불교사원 등이 있다. 한국불교로서는 최초로 한국사람을 짓고 한국불교학교를 세우려고 준비하는 곳이 바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다. 탄자니아 수도 다레살람에는 스리랑카불교사원이 시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로 명상과 캠프를 지도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잠재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아프리카! 그토록 거대한 대륙이 적어도 2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가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불교국 스리랑카, 승려부족 '비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 스리랑카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불교도인 불교국가이다. 잘 알다시피, '불교국가'는 전 국민 중에서 차지하는 불교도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불법을 공부하며, 신도들에게서 보시를 받고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승가(僧伽)가 없으면 '불교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불교국가'로 부르는 데 손색이 없었던 스리랑카에 비상이 걸렸다. 수백 년 동안 영국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불교'를 버리지 않았던 스리랑카 국민들이 세계화 물결 속에 밀려들어오는 서구 자본과 기독교 세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를 안타깝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승려 부족으

생활을 선호하게 되면서 시골에 위치한 사찰을 떠나고 승직을 포기하게 되었다. 게다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위치한 사찰들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는 신도들이 스님들을 봉양하기 힘든 상황이라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지난 2001년에도 당시 수상이 어린 이 2000명을 모집해 승단에 들어가게 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는 성인들을 모집해야지, 어린아이들을 출가시키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고, 이런 비판에 대해 다시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몰아내려는 음모일 뿐이다'는 강력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

어쨌든 이제는 이곳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쳐, 스님들도 전통 방식을 버리게 된 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등교육 마친 스님들, 상당수 환속하고 도시로 여성 출가 불허·핵가족화 따른 아들 부족 탓

로 스리랑카 불교계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부디스트 채널 (The Buddhist Channel)>이 8월 11일 인용한 <싱갈 뉴스(Sinhale News)>에 따르면, '승려 부족 때문에 이미 350여 사람이 문을 닫았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스리랑카 불교 교단의 미래까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불기 255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2,550명에게 계를 주는 캠페인인 웨삭데이(Vesak Day)에 시작되었다.

독실한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이처럼 승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가 무너지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많은 가정에서 출가시킬 이들이 부족하게 되었다. 둘째, 승단에 들어와서 재가 신도의 도움을 받아 고등교육을 마친 스님들 중 상당수가 승복을 반납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공부를 마친 스님들이 좀 더 편안한 도시

그렇다고 해서 스리랑카 불교계에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를 들어 불허하였던 '여성 출가'를 인정하여 비구니 승가를 복원하면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출산을 저하'와 '핵가족화' 경향, 그리고 불교 교육의 세속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겪게 될 것이다. 승려 부족 때문에 곳곳에서 사찰이 폐쇄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스리랑카보다 더 심각한 '승려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도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구니승도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입지와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50년이 채 되지 않아 스님들이 한 분도 없는 텅 빈 사찰이 늘어나 '추억 속의 건물'이 필자도 모른다. 승려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스리랑카 불교계 소식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 자유기고가

대만 불광산사·남화대학 11월 방한

세미나 개최·불교시설 방문 예정

대만 불광산사와 불광산사가 운영하는 남화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오는 11월 초 한국·대만불교문화교류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대만불교계의 이번 한국 방문은 지난 7월 불광산사의 초청으로 한국·대만불교

문화교류회 관계자들이 불광산사와 남화대학을 방문해 상호 교류키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대만불교문화교류회(회장 연정열)는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한국의 사찰 및 각종 불교시설 방문 등 대만 방문단 측의 한국 일정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대만불교문화교류회는 양국불교



7월 5일 대만 남화대학에서 열린 양국 관계자 간담회 모습.

사상 연구 및 학술·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 올해 2월 한성대학교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김무생 전자

종 교육원장, 이외윤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상인회장과 공동대표 법명 스님(장병 법성사 회주) 등 한국 측 인사와 이재방 주한대만대표부 대표와 서울 불광산사 주지 각자 스님을 비롯한 대만 측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연정열 한국·대만불교문화교류회장은 "불광산사와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한국불교를 대만에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자등 승강 정치(등포 조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백중은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마음을 닦아서 목련존자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천도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삼세가 도는 법을 말하는 아주 뜻이 깊은 날입니다.



우란분절(백중)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인등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 경우 공소 합니다.